

교차로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
도각 스님

“청소년 선도활동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만해 한용운선사의 청년운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불법을 통해 청소년을 계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방학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상담센터인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원한 김도각스님(한국불교청년회장)의 서언이다.

도각스님은 지난해 11월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취득이후 청소년 선도활동에 관한 전문상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설했다.

“진정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말행으로서 모든 그릇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상담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하게 된다. 또한 도각스님은 마음의 전화를 개설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근)

“청소년들의 형님 쉼터”

소년문제 등에 관한 전문상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설했다.

“진정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말행으로서 모든 그릇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상담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하게 된다. 또한 도각스님은 마음의 전화를 개설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근)

밤방 한국은행 불교회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으로서는 불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구현하자’ 우리 경제 중요부분의 인력을 담당하면서 변함없는 불심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불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개인신앙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은행 불교회(회장 권영진·이하 한국은행 불교회)’는 지난 85년 12월 창립회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금융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실행단체로 손꼽힌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법회를 열고 있는 한국은행 불교회는 그동안 법정스님, 서경보스님, 지광스님을 비롯해 승사

구, 정병조, 이기영, 목정배교수 등 교계의 이름있는 스님과 학자를 초청, 불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오는 등 교리학습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매월 1회 근교사찰 참배와 분기 1회 성지순례를 통해 불심을 증진시키고 있는 한국은행 불교회는 가을마다 해인사를 찾아 신임회원과 가족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여는 등 가정과 직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에도 열심이다.

또한 창립법회와 초파일법회 등 대법회에는 뛰어난 큰스님을 비롯 불법전파를 위해 서경주, 고은씨등

을 초청해 사내 불교를 모르는 직원들에게도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불교회는 지역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성당 자원봉사 불교복지단체의 후원과 불우아동과



함께 봉안된다.

동국대서 정치학 명예박사

황명수의원(민자·동국대총동문회장)은 지난 달 24일 오전 10시 민회와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로 동국대로부터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근 전회장 추도식 봉행

김석원회장(상용그룹)은 25일 신현학 전총리를 비롯, 정재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리조트에서 고 김성근 전회장의 20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장남 혁주군 화축

권오현국장(대한불교진흥원사무국)의 장남 혁주군이 노경순씨의 차녀 전상을 맞아 신부로서 3월 4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정년퇴임·출판기념식

리제대학교장(동수원 중학교)은 27일 오전 11시 동수원중학교에서 정년퇴임한 다. 46년 6개월간 교육계에서 헌신한 리교장은 이날 정년퇴임식과 함께 저서 <수원의 옛문화>출판기



불교기아 도움기구 후원의 밤 성황

불교방송특집 공개방송으로 열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후원의 밤이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5백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학 남강수 현담 김홍국씨와 선우·대은스님 김

활신씨 덕봉스님 한인식 함영숙 김재원회장(뒷줄 왼쪽부터), 장미화 박기순 김혜연 진송남(앞줄)씨등 불자가수가 출연했다.

이날 1천여만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계시판

▲출판기념법회=수효사는 1일부터 3일까지 지복스님의 <초발심자경문>출판기념 및 참회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 법사는 지복스님. (02)313-3060, 3037

계시판

▲경륜려 간사 모집=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임주)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모집한다. 외국어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765-5448

계시판

▲보육교사 교육생 모집=중앙승가대와 보육교사교육원은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주간·야간 각 1백명. 모집기간은 3월6일까지. (02)929-5004

계시판

▲강좌개설=(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연구원 법당에서 3개월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금강경오가해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불교학개론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02)575-6167~8

계시판

한라불교 대표이사 취임

김승석변호사는 지난 10일 한라불교신문을 주석회사로 법인등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한라불교 신문은 제주 유일의 불교신문이다. (02)575-6167~8

용기관의 법회실함을 두고, 매년 봄·가을 두차례 합동법회와 연등행사를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계 불자들의 터트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들어 각 직장마다 각종 법회가 생기는 하나 법회운영 프로그램과 지도법사 부족 등으로 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한국은행 불교회는 10여년을 한결같이 새로운 내용의 알찬 법회를 운영하며 내실을 기하고 있다.

창립초기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지금의 한국은행 불교회를 만들어 내는데 열정을 바쳐온 홍순우 부회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호경쟁과 복잡한 교통문제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나 독송모임, 참선모임 등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계 법회의 모범으로 그 자리를 굳게 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김영문 기자)



한국은행 불교회 신임회원과 가족들은 매년 가을마다 해인사를 찾아 오계를 받고 불법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복지단체 후원·불우아동 결연에 앞장...회원 3백명

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활동중에서도 한국은행 불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한국은행 불교회 창립이 한일·제일·중소기업·서울신학은행등 국내 13개 금융기관의 불교회 창립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 불교회는 92년부터 시작된 각 은행 간사들의 모임인 ‘금융단체 불교회 운영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정기모임을 통해 다른 금



내일을 여는 불자

“입을 크게 벌리고 리듬에 몸을 실어봐. 자! 다시 한번 해 볼까” 지휘자 박이제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성하게 부산스럽던 어린이들이 입이 다시 하나가 된다.

6년여의 독일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박이제씨는 “서양 음악에 우리 불교음악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패와 같은 우리 음악 양식에 서양음악을 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직하게 불교음악의 방향을 제시한다.

타종교에는 ‘음악목사’라 불리지만 박이제씨는 군복무 기간동안 줄곧 교회를 다니다 군체대 3개월 전 연인인 박이제씨를 만나게 되자 박이제씨는 “불교음악은 심신의 협력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포괄적으로 내용이 호평을 들었다.

“교회음악인 서양음악이 현대 음악의 기초를 이루는 가운데 불교음악이 무작정 그 흐름에 쫓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박이제씨는 “서양 음악에 우리 불교음악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패와 같은 우리 음악 양식에 서양음악을 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직하게 불교음악의 방향을 제시한다.

타종교에는 ‘음악목사’라 불리지만 박이제씨는 군복무 기간동안 줄곧 교회를 다니다 군체대 3개월 전 연인인 박이제씨를 만나게 되자 박이제씨는 “불교음악은 심신의 협력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포괄적으로

‘부처님 사랑’ 등 작곡에 전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지난해 독일유학 마쳐

애기할 수 있는 다양함을 지닌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동국대대 승가대에 불교음악과가 개설돼야 하며 무엇보다 종단차이를 뛰어넘어 불교음악의 연구와 창작의 열정을 보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찬불가 공모를 통한 창작의 기회와 발표의 기회가 마련돼 찬불가 및 불교음악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소규모 실내악과 전자음악, 합창단을 모두 포함하는 불교음악으로 세계종교음악과 음악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세계민요”의 편곡과 찬불가의 창작활동에 여념이 없는 그는 불교음악연구회의 연주회와 대한 불교음악발표회 등 화려한 수상경력의 소유자 박이제씨는 87년 찬불가 「보살계의 노래」 작곡이후 “천만사상 건넌 비바다” “부처님 사랑” 등 10여곡의 불교음악을

(도필선 기자)

1995학년도·신(편)입생 모집요강

동방 불교대학

(佛敎學科·梵唄科·佛敎美術科·韓醫豫科)

— 4년제 주간,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 체제와 종합적인 불교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울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고
불교학과	불교교리와 불교 경전을 교육	60명 (통신생 포함)	4년제
법패과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5명	4년제
한의학과	한의학개론·생리학·본초학개론 등 미국 결연 대학 한의학과 예과 과정을 교육	40명	2년제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불교 강연 사교과 이상 수료자
-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동),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동)
- (2) 한의예과는 국어·영어·수학·화학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6일 ~ 2월 28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일요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1995년 3월 1일 (수) 10:00 ~ 18:00

6.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4) 주민등록등본 1통
-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 (6) 반명판 사진 6매
- (7) 전형료: 30,000원(단, 불교미술과는 40,000)

7. 참고사항

- (1) 한의예과 수료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우스베일로 대학과의 교육 결연에 의거, 사우스베일로 대학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2) 미국 결연 대학에서는 한국어로 교육받고 시험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음.
- (3)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 (4) 강좌 개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임.
- (5)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과 하계·동계 방학 중의 2박 3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6) 기숙사 운영(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8.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 (1) 본대학 2년 수료자
 - (2) 강원 대학교 수료자
 - (3)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 (4) 불교교과대학 졸업자
2. 기타
 -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 (2) 4년제 이수자에게 제1급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예전 중역 법계를 흡수함.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2) 태고종 총무원(☎ 745-2030) (3) 태고종단 각 교구 중무원 (4) 경서원(조계사 앞 ☎ 733-3345)